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해보험재팬, 사고정보 분석 서비스로 3개국 특허 획득

- 손해보험재팬은 최근 자국 및 해외 기업들의 위험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고정보 분석 시스템 ‘이지스(AEGIS)’로 일본, 중국, 싱가포르 당국으로부터 특허 승인을 취득함.
 - 기업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 절차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고정보 분석시스템인 ‘이지스’를 개발하여 2004년부터 시행 중으로, 현재 이지스 서비스는 제조, 유통 및 임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약 20여 개 기업들이 사용 중임.
 - 손해보험재팬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알림, 서류 작성 등 대응 과정 전반을 자동화하는 한편, 사고 관련 데이터를 조건에 맞게 검색 및 분류한 후 차트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, 사고 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기능을 대폭 향상시킴.
 - 일본과 중국, 싱가포르 특허청은 이 시스템의 독창성 및 우수성을 인정해 작년 10~12월 사이에 특허를 연이어 승인했으며, 미국 및 유럽에서도 현재 특허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- 손해보험재팬은 이번에 개선된 이지스 서비스가 글로벌 기업고객들의 사고 예방 및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줌으로써 최근 추진 중인 해외사업 강화 전략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- 이번에 취득한 특허 기술은 전 세계 기업고객들의 사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검색부터 분석 및 예방조치를 포함한 컨설팅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, 첨단 IT기술이 집약된 업계 최고의 사고정보 분석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음.
 - 현재 손해보험재팬은 중국에서 4번째 영업지점 설립을 준비하는 등 이지스 서비스와 같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12/22)